

“방망이 짧게”... 이범호 손길에 KIA 최원준 부활 신호탄

시즌 초반부터 타격 부진 시달려 이 감독 특훈 뒤 달라진 타구 질 KT전 멀티히트 등 승리 기여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타격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KIA 타이거즈 최원준(28)이 이범호 KIA 감독의 타격 코칭을 받고 난 뒤 부쩍 늘어난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10년간 ‘수비형 외야수’로 살아온 김호령(30)을 이범호 감독이 ‘공수 겸장 외야수’로 만들어 낸 만큼 최원준의 방망이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인다.

서울고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KIA에 합류한 최원준은 입단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였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타율 0.470(66타수 31안타)과 함께 4홈런, 14도루, 출루율 0.557, OPS(출루율+장타율) 1.451이라는 괴물같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최원준은 ‘이영민 타격상’과 BIC 0.412상(백인천상)까지 받기도 했다.

내·외야 수비를 가리지 않고 빠른 발과 수준급 컨택 능력을 가진 최원준은 프로 무대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는 2020년 123경기에서 타율 0.326, 2홈런, 35타점, OPS 0.808로 맹활약했으며 2021년에는 143경기 타율 0.295, 4홈런, 44타점, OPS 0.742로 팀 내에서 타격으로 최정상에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상무에 입단해 2023년 여름 KIA로 돌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부진을 겪어야 했다. 2023년 67경기에서 타율 0.255, 1홈런, 23타점, OPS 0.672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주전 중견수로 활약하며 타율 0.292, 9홈런, 56타점, OPS 0.791을 기록하며 KIA의 정규 시즌 우승에 기여했고 한국시리즈에서는 1할대 타율로 주춤했지만 결과적으로 생애 첫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를 손에 넣기도 했다.

2025년은 최원준에게 중요한 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올 시즌 초반부터 타격 부진에 휩싸였다. 개막 이후 두 달간 38경기에서 타율 0.195(123타수 24안타)에 그쳤다. 이에



KIA 타이거즈 최원준이 지난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 경기에서 안타를 터뜨린 뒤 세레머니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지난달 초 타격 부진으로 1군에서 제외됐고 열흘 만에 다시 돌아온 최원준은 지난 달 21일 KT전에서 수비 실책으로 또다시 2군행을 통보받기도 했다. 6월 초 또다시 1군으로 올라온 최원준은 지난 10일부터 5경기 14타수에서 무안타로 부진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 감독이 훈련 중 그를 찾았다.

지난 17일 KT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직접 배팅케이지로 찾아가 배팅 훈련 중인 최원준의 타격 자세를 점검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이 감독은 “지금 타격 타이밍이 반 타이밍 정도 늦는데 방망이가 짧아지면 스피드가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고 했다. 손아섭 선수도

그렇고 선수들이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방망이를 짧게 잡고 스윙하는 지 이야기 해줬다”면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안타가 나와서 출루를 하고 해야 불안한게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갖고 있던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면 리그 후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만의 야구 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감독의 특훈 결과가 곧바로 빛을 발하고 있다. 최원준은 지난 17일 KT전에서 8회말 1사 1루 상황 교체투입돼 안타를 터뜨렸고 뒤이어 최형우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자 홈을 밟으며 득점에 성공했다. 18일 KT전에서는 중견수 9번타자로 선발 출전해 5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 최원준의 안타로 시작해 고종욱, 박찬호로 공격이 이어지며 득점했고, 6회말에도 득점으로 이어진 않았지만 안타를 성공시키며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팀의 위닝 시리즈 조기 확정에 기여했다.

최원준은 “이범호 감독님께서 직접 방망이를 봐주고 손잡이 부분에 테이핑도 해줬다”며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미래국가대표, 진천선수촌서 하계합숙 훈련 돌입

빙상·수영 등 8종목 270여명 참가

대한체육회는 오는 7월부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5 미래국가대표 하계합숙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빙상, 수영, 사이클, 소프트볼 등 8개 종목의 미래국가대표 후보, 청소년, 꿈나무 선수 2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훈련은 종목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선수들은 선수촌 내 훈련장, 웨이트장, 선수식당, 숙소 등 국가대표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활용하며 훈련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합숙을 통해 미래

유망주들이 국가대표 선배들의 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동기부여를 얻고, 실질적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던 선수촌을 미래 유망주들에게 개방해 성장의 장으로 삼겠다”며 “유망주 발굴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으로 추진된다. 대한체육회는 유·청소년 선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제17회 전라남도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지난 18일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렸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제17회 전라남도시각장애인체육대회, 영광서 성황리 개최

22개 시·군 600여 명 참여

제17회 전라남도시각장애인체육대회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의 지원 속에 18일부터 19일까지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이틀간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선수 350명과 임원·자원봉사자 250명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시각장애인 체육의 저

변을 넓히고 도민 화합을 다졌다.

경기는 골볼, 실내조정, 시각볼링, 시각탁구, 팔씨름, 줄다리기 등 생활체육 5종목 등 총 10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넘어 건강한 경쟁과 연대를 나누며 스포츠의 가치를 실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영광 9경 등 지역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를 체험하며 영광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최동환 기자

광양시청 불링팀,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대회 종합 준우승 쾌거

금 2·은 2·동 3개 수확

광양시청 불링팀이 제26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정상 실업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일 전라남도체육회와 전라남도불링협회에 따르면 광양시청 불링팀은 최근 전북 전주파인트리불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남자 일반부에서 금 2·은 2·동 3 등 7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준우승에 올랐다.

유승호는 개인전에서 1598점(평균 266.3점)으로 금메달을, 박상혁은 1539점(평균 256.5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5인조 경기에서는 박상혁, 백승민, 유승호, 김동현, 가수형이 합계 7168점(평균 238.9점)을 기록하며 인천교통공사(6964점·평균 232.1점)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개인종합에서는 박상혁이 5825점(평균



광양시청 박상혁, 백승민, 유승호, 김동현, 가수형이 최근 전북 전주파인트리불링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 남남부 5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 시상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242.7점)으로 은메달, 유승호가 5723점(평균 238.5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마스터즈에서는 가수형이 2427점(평균 242.7점)으로 은메달, 박상혁이 2416점(평균 241.6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유승호는 개인전과 5인조전에서 2관왕에 오르며 팀의 종합 준우승을 견인했다.

광양시청은 지난 5월 전국실업불링대회 종합 우승에 이어 또 한 번 전국 무대에서 전남 불링의 위상을 드높였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광양시청 불링팀의 연이은 성과가 매우 자랑스럽다”며 “최상의 훈련 환경을 조성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전남드래곤즈, 김포전서 분위기 반전 노린다

22일 K리그2 17라운드 홈 경기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김포FC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2025 17라운드 김포FC와의 홈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지난 16라운드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0-1로 석패하며 시즌 첫 홈 패배를 기록했다. 경기 초반 가랑비가 점차 거세지며 양 팀 모두 고전한 가운데, 전반 37분 부산 골잡이의 헤더슛을 최봉진 골키퍼가 막아낸 뒤 롱패스로 공격을 이어갔지만, 이후 발디비아의 파울 상황이 선

언되지 않으며 실점으로 이어졌다. 전남은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는 등 악조건 속에 분투했으나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이날 패배로 전남은 승점 29점(8승 5무 3패)으로 3위에 머물렀다. 2위와의 승점차는 2점으로 유지됐지만, 4·5위 팀들의 추격을 받으며 상위권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이번 상대인 김포는 승점 19점(5승 4무 7패)으로 9위에 있다. 최근 천안(1-0승)과 경남(3-0승)을 꺾으며 홈 2연승으로 상승세지만, 원정에서는 3월 이후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양 팀 통산 전적은 전남이 4승 2무 5패

로 근소하게 뒤져 있으나, 최근 5경기에서는 전남이 3승 2패로 앞서 있다.

전남은 14라운드 화성전부터 이어진 홈 4연전 중 현재까지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이번 김포전은 4연전의 마지막 경기로, 전남 선수단은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상위권 경쟁에서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로 이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순천시의사회의 날’로 열리며, 순천시의사회 소속 병원 임직원과 가족들이 대거 경기장을 찾는다. 하프타임에는 ‘섬진강의 봄과 함께 하는 키스타임’이 다시 진행되며, 광양사랑상품권, 워터파크 입장권, 영화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도 준비됐다. 경기장 외곽에서는 선수단 사인회, S/S 의류 판매, 푸드트럭 운영 등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가 마련된다.

민현기 기자